

▶ 자료 ② ◀

調布(조후)시립도서관의 위탁투쟁에 대하여

1995년 10월

〈도서관문제연구회〉

1. 관리위탁을 저지하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약 1년간의 운동에 의하여, 調布市는 사실상 도서관의 관리위탁을 단념하였다. 1980년대, 京都市·足立區에서는 전국적인 지원을 얻은 커다란 운동과 당국을 압도하는 정당한 주장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강행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 도서관 유사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의 통합화와 시설 전체의 관리위탁이 추진되려 하고 있던 중, 調布市에서는 시의 당초 구상을 변경시켜 도서관법에 바탕을 둔 시립도서관으로서 개관할 수 있었다. 위탁 제안을 되물리치고 『직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처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 성과는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도서관 조례에 위탁조항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현재는 열람실 관리의 위탁이고 도서관의 본질에는 영향을 없다.

『직영』을 쟁취하게 된 것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요소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 가) 시의 검토 및 준비 부족(도서관법 등 법규상의 검토·재단설립기준에 대한 대응 등)
- 나) 文部省 견해·京都市의 정책 지도
- 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운동과 학자·문화인·도서관인 등의 전국적인 지원
- 라) 위탁 문제점의 지적, 도서관 본연의 모습 주장
- 마) 매스컴에 의한 여론 환기
- 바) 도서관 위탁을 의문시하는 시의회의 태도

사) 노동조합의 文部省·京都市에 대한 홍보 활동

2. 시민운동의 힘

調布市의 위탁 저지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민이 전면에서 나서서 활동한 점이다.

직원의 홍보 활동으로 도서관의 위탁 제안을 알게 되자, 시민은 자발적·자립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서관에 대하여, 지방 자치에 대하여 배우면서, 쉬지 않고 소리높여 전단을 뿌리고 집회를 기획하였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의회를 방청하며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 달려갔다.

위탁문제를 둘러싼 이론을 파악하고 앙케이트에 바탕을 둔 도서관에 대한 요망을 제출하였다. 재빠른 정세 판단 아래 적절히 행동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 활동을, 현장직원, 多摩地區의 도서관 직원과 학자·문화인,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민 단체와 전국의 도서관인이 지지하고 매스컴도 문제 시하였다. 시민·학자·문화인·노동조합 등이 힘을 합한 京都市나, 구민·현장직원·노동조합이 일체가 되어 도서관문제연구회가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한 足立區와는 또 다른 운동의 진행방법이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調布市 시민이 줄곧 활기차고 즐겁게 활동을 계속한 것은 앞으로 각지의 운동이 특히 배워야 할 점이다.

3. 연중·장시간 개관 문제

초점인 위탁문제는 이를 단념하고 『직영』형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연말연시, 특별정리, 관내 정리 일 외에는 휴일이 없고 매주 정기 휴관일이 없는 이른바 연중개관이 이번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에 도입되었다. 더구나 매일 20:30까지 야간개관도 실시하게 되었다. 이미 京都市(현재는 매주 화요일 휴관)나 足立區의 예에서 지적한 대로 연중개관도 또한 도서관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또, 분관은 종래의 2~5명 체제로부터 평균 1.5명 체제로 삭감되었다. 게다가 직원구성비율은 정규직 직원이 50% 정도이다.

운영을 뒷받침하는 상황으로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앞으로의 이용상황 추이에 따라 『인원을 재검토한다』는 노사합의에 바탕을 둔 운영방법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만들기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4. 도서관문제연구회의 행동과 앞으로의 과제

4.1. 일릴 것·연대할 것

현장직원이 시의 위탁구상을 파악한 시기는 상당히 빨랐다. 그러나 시민도 포함한 학습회를 열어 위탁문제를 널리 호소하기까지, 파악한 뒤의 반 년 정도 사이에 정보는 직원내에서만 머물고 있었다. 또한 문제가 표면화한 이후에도 다른 자치체 직원과의 연대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시 직원노동조합의 지원을 얻는 일이나 정세 공개의 방법도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調布市の 도서관을 더욱 더 좋게 하는 모임』결성 후에도 운동의 안쪽에만 있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보인다.

위탁이라는 정보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시민은 행동을 개시했다. 調布市の 경우에도 직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에 호응하여 시민이 들고 일어났다. 이 일은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켰다. 공식 제안이 있는 후에 그것을 철회시키기란 곤란한 일이고, 저지 행동 개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

기 때문에 빨리 알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일을 파악하게 되면 재빨리 소리높여 행동하자. 발 빠른 직원의 민첩한 대응의 중요성의 재인식, 이것이 이번 일의 반성과 교훈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문제연구회로서, 調布市の 회원을 통한 정보 공개와 운동의 연대에 대한 움직임이 미약했던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한편, 다른 자치체의 회원, 특히 多摩地區의 도서관인·연구자가 학습·집회활동을 전개하고 『調布市の 도서관을 더욱 더 좋게 하는 모임』에도 참가하여 활동한 일은 운동의 커다란 뒷받침이 되었다.

이것은 위탁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고, 도서관문제연구회원의 저력이기도 하다. 또한 전국적 규모로 지역과 입장을 초월하여 운동이 확산된 것은 그것이 도서관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의 교류·인적 교류는 도서관문제연구회라는 조직과 도서관문제연구회원의 힘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도 크다.

위탁 혹은 유사위탁 제안은 어느 자치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해당 자치체의 도서관 직원이 분발해야만 할 도서관 운동·지역 운동이고, 어느 지역이건간에 『현지 도서관인의 분발』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4.2 「도서관의 운영위탁을 생각하는 전국 연학회」

위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당국에 호소문을 제출하여, 현지 운동에 힘을 북돋아 주는 한편, 타 단체에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도서관문제연구회는 調布市에서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 이것을 계기로, 『도서관의 운영위탁을 생각하는 전국 연학회』(이하, 『연학회』)의 설립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학회는 『통신』을 발행하고, 위탁 정보 등을 전국에 발신함과 함께, 정보수집·조사활동을 하고, 調布市 운동과의 연대도 모색하였다. 연학회에는 전국으로부터 『정보』가 잇달았다. 도서관인·교육위원회·시장·기획담당자·시민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탁과 도서관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와 문의가 쇄도하여, 위탁과 유사위탁의 사례가 각

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4.3 京都市 도서관 조사보고 등

연락회는 調布市 운동을 측면에서 응원하고 또한 각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를 기획하였다.

그 중 하나가 『京都市 도서관 조사보고서(중간보고)』이다.

이 보고서는, 현지의 직원노동조합과 도서관문제 연구회원·연구자의 힘을 빌려,

가) 京都市 위탁문제의 발단·경과·문제점

나) 위탁 10년후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 정리한 것이다.

京都市 위탁의 문제점은 운영이 이중구조라는 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처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연중개관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널리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京都市의 조사 이래 정리된 것은 없고, 각지에서의 위탁이나 단순히 『직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기획단계여서 조사 실시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위탁을 생각하기 위한 책자는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지만, 調布市 현지에서 보고집 정리를 계속하게끔 도와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위탁을 제안받지 않기 위하여

사서가 배치되고, 운영에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도서관에 대한 위탁제안이라는 의미에서도 調布市는 주목받았다. 시는 왜 위탁을 제안한 것일까. 재정사정, 시설 통합화와 전면위탁이라는 『스타일』 도입 등의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한편, 직원측에게 허점은 없었는가. 위탁문제가 표면화된 후에 토·일요일뿐이었던 분관의 오전 개관을 전일개관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이 시민의 절실한 요구이며 실현가능한 일이라면, 실시를 위한 검토가 왜 좀 더 빨리 직원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시가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여 실현시킬 활동을 해 왔는지?...

이 일은 調布市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속된 자체의 도서관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본연의 자세와 직원구성·협력체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현상적인 서비스에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러한 것을 스스로 묻고 계속해서 그 답을 모색하는 것이 도서관인의 책무이다. 시민과 함께 도서관의 발전·변혁을 위해 행동하여야만 진정한 도서관인·사서가 되는 건 아닐까?

안이하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위탁을 제안받지 않기 위하여, 평소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도서관인과 사서가 지고 있는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전국 도서관인은 늘 묻기 바란다. 좋은 서비스를 계속하고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다. 전국 도서관인의 분발을 기다린다.